

분류	주일예배 설교- 주일1부
제목	아침, 저녁으로 분향
성경	출애굽기 30:1-10
일시	2010년 3월 7일
장소	임마누엘 서울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말씀 (출애굽기 30:1-10)

- 01/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 02/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 03/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를지며
- 04/ 금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쥔 곳이며
- 05/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 06/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 07/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 08/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 09/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진제의 술을 붓지 말며
- 10/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 요약 자료 ♣

☞ 서론

▶ 램넛트 7명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뭔가하면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다. 내가 미래를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면 승리하게 된다.

- (1) 요즘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 (2)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는 마지막에 희망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고난의 때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다(마24장, 딤후3장). 그래서 그 고난에서 빠져 나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 (3)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재앙이 일한 것이다(노예, 광야)
- (4) 나의 체험- 우리는 6.25를 만나서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었다. 그런데다가 우리 마을에 화재가 났다. 이런식으로 계속 어려움이 왔다.
- (5)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 오늘 여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1.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동안에 일어난 영적인 것(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 (1) 복음을 놓쳤던 이스라엘 민족
 - ▶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안하시는게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라.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전부 회복시켜서 완전 승리해라.
- (2) 옛날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아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요셉의 형들, 70명의 후예들)
 - ▶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는 이유는 복음을 완전히 회복해라. 여러분 가문, 개인, 사업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바란다.
- (3) 하나님이 가문을 살려내려고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라.
 - ▶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성급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키이다. 제대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시겠다.
 - ▶ 저는 어릴 때 경험을 해 보았다.

2.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능력을 제대로 붙잡으라.

- (1)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 (2)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라.

- (3) 언약케 가는 곳마다 일어난 응답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라.
- (4) 성막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 (5)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사명을 준 것이다
 - ▶ 지금 응답을 안하시는게 아니고 가야될 일이 크고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3.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라.

- (1) 등불을 손질할 때, 밤이 되어 등불을 켤 때 향을 피라.
- (2) 이 분향할 제단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라. 그리고 늘 이 향을 피워라.

4. 결론- 향을 항상 피워라(지금부터 누릴 것)

- ▶ 향을 피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뭔가 기도를 늘 드린다는 말이다(고후2:14-16,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명의 향기)
 - (1) 개선장군과 향- 장군에게는 생명의 향기, 포로에게는 죽음의 향기
 - (2) 고후2:16,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명의 향기
 - ▶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면 흑암에게는 사명의 향기이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향기는 전부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여러분 가문을 수십년 동안 괴롭혔던 흑암세력을 죽이는 향. 이것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고 냄새를 온 곳에 풍겨라.
 - (3)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 1) 정시 기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라. 모든 것 해결된다. 여러분 앞에 놀라운 문이 열릴 것이다.
 - 2) 100배의 축복(창26:12, 막10:29-30)
- ▶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응답 받기 바란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피우는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도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end)

◆ **독취 자료** ◆

서론

▶ 옛날에 인도가 영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있다. 그렇게 하니깐 영국 사람들이 인도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인도에 유명한 지도자, 간디가 열차를 타고 갔다. 그런데 영국백인들이 왔다. 그 사람들이 군인이었다. 간디를 보고 열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왜 내려야 되느냐? 왜 흑인이 여기에 타느냐? 말하자면 여기는 고급사람들만 타는 곳이다. 네가 왜 여길 타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돈을 주고 탔다. 돈을 주고 타도 여기는 네가 타면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안 가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군인 네 명이 창문을 열어서 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래서 감정이 쌓여있는데다가 터져서 폭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 인도 백성들이 대항을 했다. 우리를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우리를 억압을 하느냐. 왜 우리를 열차도 못 타게 하느냐.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것이 큰 사건이 된 적이 있었다. 인도 사람들은 전부 몽친 것이다. 인도사람들을 영국에 와서 괴롭히는 데 우리는 열차 타지말자. 일제히 열차 타지 말고 걸어서 다니자. 그래서 막 대항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인도열차가 지나가는 철길에 누운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는가. 자유를 달라. 왜 우리를 자꾸 괴롭히냐. 그래서 그것을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는 일 어날 수 없다. 이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다. 우리 인도 사람들은 일제히 차를 타지마라. 그러니까 인도 할머니 한 분이 가야되는데 걸어서 간 것이다. 얼마나 힘든 일인가?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영국 군인이 차를 몰고 따라오면서 할머니보고 타라고 한 것이다. 데려다 줄 테니까 타라. 끝까지 안타다고 했다. 계속 가는데 가는 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다고 타라고 했다. 그 때 인도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나는 절대 탈수 없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타면 내 후손들은 또 나처럼 걸어야 한다. 그런 역사의 유명한 일들이 있었다.

▶ 렌넬트 7명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다. 렌넬트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미래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대항을 했지만 미래가 불안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공부도 못한다 치더라도 내가 미래를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더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

▶ 옛날에 내가 전도사일 때 교사들 모임이 있었다. 강사를 한 분 초청을 했다. 그 때 강사가 이름을 기억하기로 동아대학에 교수로 하다가 은퇴한 박귀순 교수였다. 그 교수님을 초청했다. 그런데 안 온다. 강의시간이 시작했는데 교수님이 오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사표를 하는데 시간이 몇 시 정해졌으면 그 시간 전에 와야지 시간이 되어도 안 오신다. 그래서 30분이 지나갔다. 습관적으로 기다릴 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자꾸 불렀다. 40분 쯤 지나가는데도 안 왔다. 그래서 내가 아, 교수님이 아마 길이 막히는지 빨리 도착 안하니깐 찬송 하나 더 부르자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깐 누가 “나 여기 와있어요.” 하는 것이다. 벌써 와 있었다는 것이다. 이분이 나를 만나서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앞에 와 앉아있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몰랐다. 이 분이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모자 쓰고 완전히 처녀가 앉아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였다. 그냥 앉아있으면 아가씨가 앉아있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린 것이다. 이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다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냄새가 나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나이가 들면 또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도 싫어한다. 왜 그렇게 살아야하나. 자기는 제일 멋있는 옷을 입는다고 한다. 자기는 제일 젊은 옷을 입는다. 그리고 미래를 놓고 지금도 공부하고 지금도 노력한다. 대단하다. 완전히 뒤에서 보면 아가씨다. 앞으로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뒤로 보면 완전 아가씨인줄 알았다. 라인이 S라인이다. 투피스입고 모자 쓰고 왔었다. 그렇게만 하는데도 교사들에게 교육이 된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1)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요즘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특히 학생들, 청년들 보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특히 좀 한국이 심하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는 것은 거기서 앞선다. 일본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한국 사람들 보면 거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가보다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한국은 곳곳마다 가는데 보면 먹는데 식당이 꼭 차있다. 그냥 막 먹고 막 달리는 것이다. 그냥 미래를 전혀 생각지 않은가 보다. 이런 것이 느껴진다. 물론 미래를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2)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하고 다르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지면 고난의 때가 온다. 그래서 빠져나오라는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 지면 아주 재앙의 때가 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것이 맞겠나? 모든 종교는 마지막 때 희망을 얘기한다.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어느 책이 맞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증인도 ‘지상왕국’ 만든다고 한다. 진짜 그렇게 하고 다닌다. 왜 만드느냐. 지상, 여호와와의 왕국을 만든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올수록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있다. 요즘 유독 여기저기 지진이 많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이 임하는데 여기저기서 지진이 터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예언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아이티에 대해서 전국 교회들이 헌금하는 날도 했지만 기도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고난에서 빠져나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대 시대마다 마지막 때가 온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했다. 그러면 노아시대가 있었고 또 계속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빠져나오라.

(3)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몇 백 년을 노예로 있었다. 이것이 보통 재앙인가?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 성공해야지 노예로 가있으면 되겠나? 몇 백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온 것이다.

(4) 저는 약간 이해가 된다. 지금 학생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6.25를 만났다. 우리는 6.25 만난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했다. 고생정도 아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우리 마을 밑에 내려보면 강통 같은 것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무슨 강통이냐면 신앙에서 우리 도와준다고 통조림을 갖다 주면 우리는 그것을 얻어먹었다. 얻어먹으라고 갖다 주면 강통 먹고 버린다. 그 강통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동네 곳곳에서 죽을 끓여주는 데가 있었다. 지금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전쟁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가 보다. 곳곳에서 우수수라든지, 우유라든가 이런 것을 죽을 끓여서 동네 사람들을 그냥 준다.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급해지니까 아이티가 그런 식으로 얻어먹는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다가 가문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다. 어느 정도 우상 숭배하는 정도인가하면 교회 다니면 망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다가 마음에 화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려움이 온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맞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축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온다.

(5)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고 있는 중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자기 후대들이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팔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네 후손들이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나올 줄 꿈에나 생각을 했겠나? 요셉은 애급의 총리를 지내지 않았다. 자기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노예가 돼서 완전히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 오늘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때 광야에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붙잡고 기도응답 받아야 한다. 광야 가는 동안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다. 이 광야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큰 네 군데에 다 나온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기록이 여호와사서이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그 많은 성경내용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이해해야 한다.

1.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동안에 일어난 영적인 것(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 첫 번째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나. 오랫동안 놓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1)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무엇을 몰랐다. 복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복음 놓치고 있었던 것도 몰랐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 복음으로 전부 회복시켜야 한다. 왜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안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 할 필요 없다. 생각해보라. 광야를 40년이나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놓고 뭐하는가. 빨리 회복을 시키라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성경전체가 이해가 된다. 이런 것을 만들어라, 저런 것을 만들어라. 무슨 말인가. 완전히 복음을 회복해라. 다음에 읽을 레위기 읽어보면 완전히 양자권, 제사 계속 나온다. 완전히 복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민수기 나오는데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는 말이다. 백성 지파마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회복시켜라. 그 말이다. 신명기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마음에 바로 새겨라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유 간단하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간단한 한 첫 번째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하시

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 시켜라. 응답이 늦는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전부 회복시켜서 완전히 승리해라. 그 말씀이다.

(2) 옛날에 이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전부 잘 못 받아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요셉의 형들이 한번 잘못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요셉이 총리되고 난 뒤에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왔다. 한명이 인도를 못 받았다. 부산에서 경기도 이런데서 사고 난 것 보셨을 것이다. 경기도 가로 나가면 큰 창고를 많이 짓는다. 왜 그런가 하면 번두리로 나가야 땅이 싸니까 큰 창고를 짓는다. 그리고 모든 물품을 거기에 보관한다. 그런 창고가 많다. 창고 만들고 있을 때 한 명이 잘못해서 그 창고에 많이 흠어져 있는데 용접하는 친구가 들어갔다. 그 친구가 주의 안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주위를 살펴보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시 위험한 것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귀찮다 그냥 빨리 해버려야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용접하는데 옆에 있는 가스통이 폭발하고 불타고 불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동시에 폭발을 하니까 피할 거리가 없다. 자기는 물론 죽고 다른 사람 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다 죽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온 사람들, 돈 벌려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다 다 죽었다. 큰 문제도 아닌 한 명의 실수다.

▶한 명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전부 회복시키라는 것이다. 실로 응답받는 것은 간단하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모든 것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분야를 회복시켜라, 복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이다.

왜 이렇게 광야 길을 오랫동안 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한다. 또대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 때 때가 있다. 하나님 어디 있나?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는 복음을 완전히 회복해라. 그래서 얼른 보면 지루하다. 성전에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전부 회복을 해라는 말이다. 그 부분만 이해해버리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문이 다 복음으로 완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3)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가족들을 보라. 이 사람들 살려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너를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다.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라. 이런 답 들이 계속 나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쉬운 답이 나왔다. 진짜 앞으로 뭐해야 할 것인가가 답이 나왔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둔 것은 모르고 버려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착각을 한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다.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그것이 들어온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전부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회개 시켜주십시오. 저거를 빨리 꺾어서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나. 간단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자녀, 가족 회개시키려면 간단하다. 눈알 하나만 빼도 되는데, 간단하다. 오른쪽 다리 하나만 부르러도 간단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키이다. 이스라엘 민족 원망하는 것들 싸다 죽여 버리면 될 것 아닌가. 말 안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다 죽여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제대로 복음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 경험해봤다. 제가 저를 잘 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지도 몰랐다. 그리고 꽤 공부도 잘했다. 못하는 체질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이 하나도 뜻대로 안 됐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전부 상처로 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음이 없었다. 나는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에 있듯이 저주가운데 빠졌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어머니가 아무리 애쓰고 육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만 가능하다. 어느 날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아, 내가 전혀 복음 없이 저주 가운데 빠져있었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세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란다. 제대로 축복을 받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생각해서 원망하고, 잘 못 생각해서 낙심하고, 잘못해서 자꾸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 광야에서 일주일 길이라고 한다. 거기서 40년이면 말이 되는가. 거의 가까이에 가데스바냐에 도착해서 38년 있었다. 오는 길은 며칠 안 걸린다고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묶은 것이다. 그것이 묶은 것이 아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본문 성경 보라. 계속 나온다. 완전히 복음 회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계획이다. 꼭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왜 이리 응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 주시려고 작심 중이다.

2.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능력을 제대로 붙잡으라.

▶두 번째이다.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능력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것이다.

- (1)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 (2)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가나안땅 들어갈 준비를 해라.
 - (3)언약계 속에는 뭐가 들었나? 거기는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그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준비할 것은 안하고 의심할 것도 의심 한다. 준비를 제대로 해라.
 - (4)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어 나가는데 성막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 (5)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사명을 준 것이다.
-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승리하도록 복음을 회복해라. 지금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야될 길이 멀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라. 그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3.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라.

▶세 번째이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답이 또 나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가운데 또 하나 나왔다.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라.

- (1)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켜라. 그리고 밤 되면 등불을 불 켤 때 분향을 피워라.
- (2)이 분향할 제단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뒤라. 의미가 크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뒤라.

4.결론- 향을 항상 피워라(지금부터 누릴 것)

▶그리고 늘 이 향을 피워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가? 얼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서도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뭔가 기도를 늘 드린다는 말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 이 사람이 향을 계속 피워라. 저는 이 향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다. 고후 2장에 보니 답이 나와 있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향기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답이 들어있다.

- (1)옛날에 이스라엘 나라, 로마 이런데서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한다. 전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성을 점령을 한다. 그러면 점령한 장군이 로마 장군 같으면 로마 기를 쫓는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로마 나라가 된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아니면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나라를 점령한 것이다. 점령한 장군을 보고 개선장군이라고 한다. 이 장군이 앞에서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온다. 그 뒤에는 군악대가 나팔을 불면서 들어온다. 그 모습을 상상해보라. 옛날에 시저 같은 장군이 승리해서 들어오면 뒤에서 말 탄 기병들이 따라오고 악대들이 연주를 할 것이다. 그 뒤에 함께 싸웠던 승리한 군인들이 같이 말을 타고 들어온다. 그 뒤에 끌려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밧에다가 묶고, 손에도 묶고 해서 그 뒤에 다른 사람은 말을 타는데 자기들은 걸어서,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된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이다. 그 때에 끌고 간 이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 버린다. 쉽게 말하면 아주 말 안 듣고 아주 악하게 대항하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 버린다. 그 직전에 하는 행사가 하나있다. 그 사람들 죽이기 직전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잘한 사람 칭찬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 때 하는 일이 온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향을 피우는 것이다.
- (2)고후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향기라고 했다. 이 향이 막 피우면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과 군인들에게는 무슨 향기인가. 생명의 향기이다. 그런데 이 향을 피우면 포로 되어 온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이다. 그것을 그리스도 향기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흑암세력에게는 사망의 향기이다.
- (3)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향기는 전부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정말이다. 여러분 가문을 수 십년, 수 백년 동안 꺾었던 흑암세력을 죽이는 사망의 향기이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성소와 성소사이에 두고 냄새를 온 곳에 풍기게 만들어라. 마치 옛날에 유행성 병, 괴질

이 돌면 소독을 해서 없앤다. 그런 것과 같은 큰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었다.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여러분 보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가야 할 길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향을 계속 피워라.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흑암세력에게는 사망의 향기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 진자로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나는 옛날에 세 가지가 궁금했다.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가. 이것이 궁금했다.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사단이 결박되는가. 이것이 나에게서 굉장히 궁금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능력을 많이 받으면 된다고 가르쳐줬다. 들어보니까 맞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답이 나오나. 나는 능력이 없어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이 자꾸 틀린 말을 한다. 목사님도 틀린 말을 한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40일 금식기도를 두 번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난다고 한다. 그 말을 가만히 듣는 순간에 어떤 확신이 오는가 하면 나는 안 된다는 확신이 왔다. 40일을 2번이나 굶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솔직한 말로 3일을 굶었는데 힘이 든다. 3일정도 굶었는데 별로 라면도 안 좋아하는데 굶으면 라면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다. 초창기 때 교회 생각이 많자 원단 금식을 했다. 그레가지고 감람산기도원인가 빌려서 한 적이 있다. 굶으면서 했다. 나도 굶어야지. 나는 설교를 해야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머릿속에 밥 생각 밖에 안 난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밥 먹겠지, 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나 전혀 내가 말은 안했다. 내가 강단 나와서 "여러분, 저는 밥 생각만 합니다." 이 말을 못한다. 그리고 있다가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밥 생각이 나서 그날따라 배가 그렇게 고했다. 이를 굶었는데 내일이면 밥 먹겠지, 이 생각을 했다. 그리고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뒤에 여집사 2명이 숨어서 뭘 먹는 것이다. 보는 순간에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안 들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왜냐면 나도 배고프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보면서 맛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내다보고 있는데 돌이켜 먹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위를 보다가 눈이 마주쳤다. 그레가지고 내가 쳐다보니까 막 뒤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생각을 많이 해왔다. 이것이 복음인가. 왜 못 먹느냐 먹지. 그 다음에 선포를 했다. 여러분 원단기도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자의로 해라. 굳이 금식하고 싶은 사람 금식해라. 안 해도 된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라. 그랬더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잡수셨다. 그렇게 지금까지 원단기도회가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틀리게 가르친다. 뭘가가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너무 어려움당하는 이 지역에 와서 제가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것이 향을 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이 제일 궁금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다. 뭐가 궁금했나? 과연 미래가 보이느냐? 이것이다.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것이 맞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말하자면 신비주의인데 이 사람은 꼭 하나님 만난 것처럼 얘기한다. 저것이 맞냐는 말이다. 이것이 얼마나 궁금한지 모른다. 확실하게 말하니까, 나는 꼭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미래를 다 알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제일 예언가로 소문난 어느 권사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권사님이다. 집회를 다닌다. 이 사람이 안수해주고 미래를 예언한다. 얼마나 신기한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순간 나를 보고 예언을 한다. 일단 기분 나쁜 소리는 안했다. 앞으로 주의 큰 중이 되겠다.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다 하는 소리 아닌가. 큰 중이 된다, 이렇게 해줘야 기분이 좋지.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다. 단번에 기도하면서 2년 안에 서울로 올라가겠다. 서울에 2년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간다. 내 길들을 예언했다. 근데 그 내용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큰 중 되겠다고 서울 가겠다는데 부산보다 서울이 낫지.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지 그런 말 들으니까 은근히 기다려진다. 서울 가도록 기다렸는데 안 가졌다. 미국도 안 가졌다. 나는 서울에 강의하러 갔다. 나는 미국에 세 미나 하러 갔다. 그 때부터는 그냥 대중 내가 생각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거의 다 실패한다.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향을 피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나. 그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시기도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과 정확한 메시지와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다. 손만 대면 낫는다는데 그것이 맞나? 나는 그게 궁금했다. 손만 대면 나아버리면 내가 그거 하면 교회 부흥될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해왔다. 손만

대면 낫는다. 그러면 병원도 필요 없다. 손만 대고 나오면 의사도 필요 없고 간호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 손만 대서 나을 것 같으면 제약회사 다 문 닫아야 되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손만 대면 나은 데가 있다. 성경이 거짓말 책이나.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쉽게 답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물론 될 수 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 위하여 의사가 못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치유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치유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할 순 없지만 확신이 왔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도 맞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도 맞다. 나는 거기 두 개의 갈등에 대한 답이 왔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하다는 말도 이해가 된다. 그것이 다 같은, 맞는 말이다.

나는 옛날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혼란하고 궁금했다.

1)여기 세 가지에 확실한 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라. 아침, 저녁으로. 본문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라고 되어있다. 이것이 답이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피울 수 있다면 모든 것 해결된다.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 여러분 앞에 이런 놀라운 문이 열릴 것이다.

2)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더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까지 하시는가? 그 질문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까지 하셔야 하는가? 쉬운 답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대로는 안 되니까 100배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창 26장 12절, 그 해 이삭이 농사를 지어 얼마를 얻었나? 100배를 얻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 막 10장 29-30절,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만 이 땅에서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지금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붙잡으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에게 100배의 응답을 주시겠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야 세상을 살린다. 그래야만 가나안땅 들어간다. 그 능력을 준비시키는 시간표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피우는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도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치유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가나안땅 들어갈 준비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사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darak.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국)	